



스타인터뷰

정규 6집 두번째 앨범으로 돌아온 샤이니

10년 달려온 샤이니... “고유의 음악적 색깔 더 짙어져”

“샤이니는 빛을 받아서 낸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대중들로부터 다양한 색을 받아 늘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할 수 있는 ‘샤이니’가 되고 싶어요”

10년 활동의 결과물로 ‘샤이니스러움’이라는 수식어를 만들어낸 그룹 ‘샤이니(SHINee)’가 한층 더 짙어진 음악적 색깔을 증명했다. 그룹 샤이니(은유, 키, 태민, 민호)는 지난 11일 오후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정규 6집 두 번째 앨범 ‘The Story of Light’ EP.2 발매 기념 음악감상회를 열고 새 앨범을 소개했다.

샤이니 정규 6집 ‘The Story of Light’는 각기 다른 신곡이 5곡씩 채워진 총 3개의 앨범으로 구성, 지난 5월 28일 발매된 EP.1을 시작으로 11일 EP.2, 25일 EP.3가 순차 공개되며, 샤이니는 각 앨범의 타이틀 곡인 ‘데리러 가(Good Evening)’, ‘I Want You(아이 원트 유)’, ‘네가 남겨둔 말(Our Page)’로 릴레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지난 10년간 참신하고 트렌디한 음악과 독보적인 퍼포먼스로 실력을 인정받으면서 다수의 히트곡으로 인기 행진을 이어 온 만큼, 이번 정규 6집 활동에 더욱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멤버 키는 “6집은 샤이니의 데뷔 10주

타이틀 ‘I Want You’, 중독성에 시원하고 서정적인 음악색 담아

“멤버간 유대감이 팀의 원동력 늘 새로운 트렌드 제시하고파”

년을 기념하는 의미도 있고, 그동안의 샤이니 모습을 다 모아서 보여주는 앨범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소개했다. 이어 “6집을 세 앨범으로 나눈 이유는 오래 준비했기 때문에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많았다. 외부에서 보이는 샤이니의 이미지를 표현한 것이 에피소드 1이라면, 에피소드 2는 우리끼리의 샤이니를 보여주자는 의미를 뒀다. 마지막 에피소드 3는 미디어 템포 위주의 음악으로 1, 2와는 또 다른 분위기로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샤이니의 정규 6집 두 번째 앨범 ‘The Story of Light’ EP.2는 청량하면서도 아련한 감성이 돋보이는 트로피컬 하우스 장르의 타이틀 곡 ‘I Want You(아이 원트 유)’를 비롯해 ‘Chemistry(케미스트리)’, ‘Electric(일렉트릭)’, ‘Drive(드라이브)’, ‘독감(Who Waits For Love)’ 등 다채로운 매력의 5곡이 수록됐다. 타이틀



곡은 ‘I Want You’라는 흑 가사와 코러스 후반부의 중독성 있는 리드 신스 사운드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샤이니 특유의 서정적 분위기를 시원하게 풀어냈다.

“6집 첫 번째 앨범 타이틀 곡인 ‘데리러 가’와 장르적인 면에선 크게 다르지 않지만, 좀 더 시원하고 밝아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분위기가 신나기 때문에 저희도 웃으면서 부를 수 있는 그런 곡이에요”(키)

“노래가 시원하다 보니 안무도 시원시원하게 만들었어요. 기존에 저희가 보여드리지 못한 새로운 색을 보여드리려고

해요”(민호)

샤이니 내에서도 ‘열정맨’이라고 불리는 민호는 이번 앨범에 직접 참여해 본인만의 개성넘치는 랩을 추가하기도 했다. 민호는 “‘Chemistry(케미스트리)’라는 곡은 파워풀하고 다이내믹한 사운드를 가진 곡이다. 처음 들었을 때부터 좋아 랩 메이킹에도 참여했다. 서로 간의 ‘케미’에 대한 가사가 인상적이다”라고 말했다.

10년간 쉬지 않고 달려온 샤이니가 이뤄낸 결실은 결국 ‘샤이니스러움’이라는 수식어다.

“이 곡은 샤이니답다’, ‘샤이니스러움’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저희를 어떤 색이라고 정의를 내리기보다, ‘샤이니는 샤이니 색이다’라는 고유명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샤이니’라는 말은 빛을 받아서 빛을 낸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대중들로부터 여러가지 색을 받아 나올 때마다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할 수 있는 샤이니가 되고 싶어요”(민호)

2008년 ‘누난 너무 예뻐’로 데뷔 후 지금까지 팀이 잘 이어져 올 수 있던 원동력으로 ‘멤버들 간에 쌓인 유대감’이라고 답한 샤이니는 앞으로의 10년도 멤버들과 함께 걸어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막내 태민은 “10년이라는 시간을 돌이켜봤을 때 ‘샤이니’는 자부심이다. 인생의 반을 멤버들과 함께 했는데, 오랫동안 쌓아온 유대감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싶다”고 미소지었다.

한편 샤이니는 앞서 발매된 첫 번째 앨범 EP.1을 통해 아이튠즈 종합 앨범 차트 전 세계 37개 지역 1위, 국내 각종 음반 차트 1위 등을 기록하는 등 화려한 컴백을 알린 바 있다. 14일 Mnet ‘엠카운트다운’을 시작으로 두 번째 타이틀곡 활동을 이어간다. /신정원 기자 sjw1991@metroseoul.co.kr

‘러시아 월드컵’ 개막... 韓, 스웨덴과 18일 첫 경기 “주말에 감성자극 힐링전시 보러갈까?”

24일 멕시코, 27일 독일과 경기

전 세계 축구팬들이 4년간 기다린 ‘2018 러시아 월드컵’의 막이 올랐다.

지난 14일 오후 11시 30분(이하 한국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루즈니키 스타디움에서 ‘2018 러시아 월드컵’ 개막식이 진행됐다.

이번 ‘2018 러시아 월드컵’은 개최국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A조 개막전을 시작으로 다음 달 7월 15일까지 32일 동안 총 64경기가 치러진다. 4팀씩 8개 조로 나눠 조별리그를 진행하며 각 조 1, 2위는 16강에 진출한 뒤 결승까지 토너먼트 경기를 치르는 방식이다.

한국은 독일, 스웨덴, 멕시코와 함께 F



13일 오후(현지시간)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베이스캠프훈련장인 상트페테르부르크 로모노소프 스타디움에서 가볍게 뛰며 몸을 풀고 있다. /연원뉴스

조에 편성, 18일 오후 9시 러시아 니즈니 노브고로드에서 스웨덴과 첫 경기를 펼

친다. 이후 24일 0시 러시아 로스토프나 도누의 로스토프 아레나에서 멕시코와 조별예선 두 번째 경기를 벌인 뒤 27일 오후 11시에는 러시아 카잔의 카잔 아레나에서 FIFA랭킹 1위 독일과 조별예선 마지막 경기를 치른다.

한국을 포함한 출전국의 조별 예선은 6월 29일 마무리되고, 6월 30일부터 16강전에 돌입한다. 7월 6~8일에는 8강전이 열리고, 7월 11일과 12일에는 각각 4강전이 진행된다. 이후 7월 14일 오후 11시부터는 3·4위전이 진행되며, 결승은 7월 16일 0시 모스크바의 루즈니키 스타디움에서 펼쳐질 계획이다.

한편 이번 ‘2018 러시아 월드컵’은 2006년 독일 월드컵 이후 12년 만에 유럽에서 열리는 대회면서도 동시에 사상 처음 동유럽에서 열리는 월드컵 경기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신정원 기자

‘르누아르: 여인의 향기전’ 인기

최근 5월 오픈한 전시 ‘르누아르: 여인의 향기전’(사진)이 방문객들의 발걸음을 기본 좋게 만들고 있다.

본다빈치뮤지엄 서울숲(갤러리아 포레)에서 전시 중인 ‘르누아르: 여인의 향기전’은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프랑스 화가 피에르 오귀스트 르누아르의 작품을 미디어아트로 재구성된 전시다.

어려운 집안 형편과 전갱터에서 친구를 잃는 힘들었던 삶과는 대조적으로 르누아르가 캔버스에 담은 여유로운 분위기의 풍경화,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들을 감상할 수 있다.

‘그림이란 항상 즐겁고, 유쾌하며, 아름다운 것이어야 한다’는 르누아르의 철학을 더 멋진 전시로 승화시킨 이번 ‘르누아르: 여인의 향기전’은 특히 젊은 커플에게는 감성 데이트, 인생샷 장소로 부각되는 것은 물론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기는 전시로도 입소문을 타고 있다.

한편 르누아르의 작품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이번 ‘르누아르: 여인의 향기전’은 10월 31일까지 본다빈치뮤지엄 서울숲(갤러리아 포레)에서 열린다. /신정원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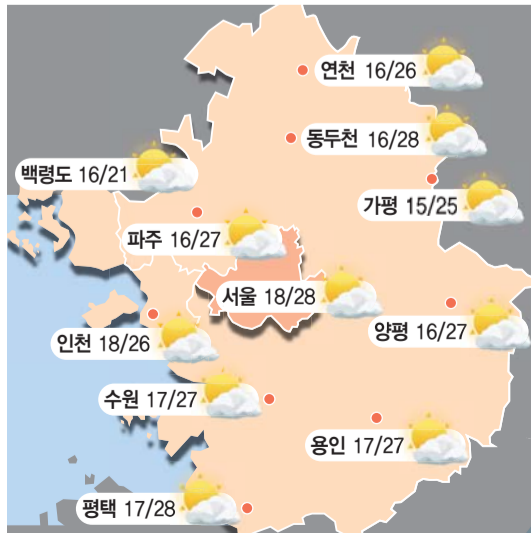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10 | 해질 / 19:55

6월 15일
음력 : 5월 2일

수도권 날씨
28~18°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뮤지션들의 유기견 돕기 콘서트 ‘안녕, 호수’

21일 CJ아지트 광흥창서 개최

국내 뮤지션들이 마음에 상처를 안고 사는 유기견들을 돕고자 자선 공연 ‘안녕, 호수’를 기획했다.

오는 24일 오후 5시 CJ아지트 광흥창(마포구 신정동 소재)에서는 유기견 돕기 콘서트 ‘안녕, 호수’가 개최된다. ‘안녕, 호수’는 한 반려견으로 인해 시작된 공연으로, 조정치, 김미려 등 약 30여 명의 아티스트들이 흥대 앞에서 약 15년간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들과 우정을 나누다 지

난 5월 11일 세상을 떠난 한 골든 리트리버 ‘호수’를 위해 기획했다.

개구무늬 김미려, 이경분이 공동 MC로 나서고, 가수 조정치와 정바비(가을방학), 팔라스윗, 박준명, 양양, TJ & Keko a, 그네와꽃 등 총 11개 팀이 선뜻 출연을 약속하며 이뤄졌다.

출연자들은 각자 호수와 기억, 에피소드를 관객과 나누며 ‘호수, 그리고 또 다른 호수가 돼줄 유기견들’을 위해 준비된 특별한 노래를 들려줄 예정이다.

/신정원 기자